

# 모바일 신분증으로 금융계좌 개설…R&D에 5조원 투자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18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건물 내부 길 안내’ 구축…반도체·6G·미래 모빌리티 등 투자 확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디지털 신(新)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18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앞으로는 이것만 있으면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계좌를 열 때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ARS나 계좌 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주민증만 제출하면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3차원 입체 주소체계에서 길 찾기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주소체계에 구축된다.

지금은 인터넷·모바일 길 찾기 서비스에서 지상도로부터 건물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로만 안내해주지만, 앞으로는 입체 도로에서 빠져나와 건물 입구를 거쳐 승강기와 복도, 집 입구로 이어지

는 건물 내부 길 안내도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런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는 올해 62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그보다 훨씬 늘어난 1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정책과제 분석 등으로 정부가 과학적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업무별 공유 데이터베이스(DB)가 3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복지·의료·세금·안전 등 4개 분야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이 구축된다.

아울러 공공 데이터 개방을 늘려 민간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형·비정형의 원시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한 데이터 레이크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

고, 공공 부문에 본인 데이터의 전송·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시스템인 마이데이터를 만들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6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장 확보와 경제 안보에 긴요한 7대 핵심 전략기술,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래적 도전 분야에 총 5조원 수준을 투자한다.

▲반도체 ▲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과 양자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우주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 전략기술에는 올해 3조7100억원보다 더 많은 4조 5100억원이 투입된다.

우주 기술의 경우 국가 거점 우주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7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선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UAM) 등의 R&D와 실증 기반 마련에 7850억원을 투자하고, 통신 쪽에선 6G 선도기술,

양자컴퓨터 통신·센서, AI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개척 도전 분야는 단기간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앞으로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과제들이다.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난치병 ▲식량 위기·사회 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일상 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 혁명 ▲우주 기초연구 지원 등이 6대 도전 분야로 지목됐다.

올해 341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내년에는 4천 260억원으로 늘린다.

주요 연구 과제들을 보면 핵융합 선도기술과 응용업 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 등에 750억원을 배정했고,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 치매 극복 연구개발 등 난치병 극복엔 5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에는 1조1300억원을 투입해 생활 안전을 높이기로 했다.

또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정부 예산 기조에 따라 R&D에도 민간과 연계한 R&D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와 연계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등의 민간 참여 R&D 사업을 올해보다 2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팀스(TIPS), 민간투자 연계형 R&D 등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매칭 형태로 지원금을 내놓는 민간 선(先)투자 R&D, 민간 협업체를 통해 R&D 과제를 선정하는 민관 협업 R&D가 확대된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뉘먹기식 R&D 사업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경쟁형·협업형 R&D는 확대하는 등 ‘성과 기반’ R&D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주·발사체·반도체 등 안보전략 분야에서 민군(民軍) 겸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무인정찰항공기에 쓰이는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처럼 국방협업형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추석에 보름달 관측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 9월4일까지 신청 9월9일 행사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전태호)이 추석을 맞이해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

추석맞이 특별관측 프로그램 ‘달아달아 밝은 달아’는 9월 9일 펼쳐지며 프로그램 참가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9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달의 지형과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국내 과학관 중 최대 크기인 별빛천문대의 1.2m 구경 주망원경을 비롯한

고성능 천체망원경으로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다.

관측행사 외에도 달 모형 만들기 체험과 직접 달 사진을 찍어볼 수 있고, 직접 촬영한 천체사진은 현장에서 인화해서 기념품으로 받아갈 수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천체관측이 어려워질 경우 행사는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쌍둥이 아니어도 얼굴 닮았으면 유전자도 비슷하다”

공통적 습관·행동에도 영향

유전자를 공유한 쌍둥이가 아니라도 얼굴이 흡사하면 유전적으로도 비슷하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연구소’의 마넬 에스텔레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얼굴이 닮은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얻은 결과를 생물학 저널 ‘셀 리포트’(Cell Reports)에 발표했다.

저널 발행사인 ‘셀 프레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확산으로 유전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외모가 쌍둥이처럼 닮은 꼴의 사람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분자 단위에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우선 1999년부터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온 캐나다 사진작가 프랑수아 브뤼넬로부터 32쌍의 닮은꼴 사진을 구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의 서로 다른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해 이들의 닮은꼴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했다.

그런 다음 생활 습관과 생물학적 특징 등을 묻는 광범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타액을 제공받아 유전체와 전사체, 단백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멀티오믹스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유전체와 후생변이, 미생물군집 등이 외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특정 유전자 조합인 유전자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다스 가치 염기 중 하나인 ‘사이토신’에 메틸(-CH<sub>3</sub>)이 추가되는 DNA 메틸화 등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생변이와 체내 미생물군집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32쌍 중 절반이 3개의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에서 16쌍 중 9쌍이 1만9277개의 공통 단일염기다형성(SNP)을 가져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몸무게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과 흡연, 학

습 등의 행동적 특성도 닮은꼴 쌍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들은 유전적 변이 공유가 비슷한 외모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습관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됐다.

/연합뉴스



KT, 신안군 자은도에 AI 리조트&호텔 구축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신안군 자은도에 새롭게 오픈한 ‘리마디프 라자 & 씨원리조트 자은도’ (약칭 ‘씨원아일랜드’)에 ‘KT AI 리조트&호텔’을 구축했다. KT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IoT 솔루션인 와이플릭스 GRMS(Guest Room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해 객실 내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 투숙 환경을 모바일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신안군 자은도에 새롭게 오픈한 ‘리마디프 라자 & 씨원리조트 자은도’ (약칭 ‘씨원아일랜드’)에 ‘KT AI 리조트&호텔’을 구축했다. KT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IoT 솔루션인 와이플릭스 GRMS(Guest Room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해 객실 내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 투숙 환경을 모바일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청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